

I776 INSTITUTE

# Newsletter

1776연구소 정기소식지 |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1103호 홈페이지 www.1776.or.kr 이메일 1776institute@gmail.com

## 지난달 연구소 동정

### 다큐멘터리 <트루스라이징> 상영회

미국의 기독교 보수 싱크탱크인 콜슨센터(Colson Center)와 포커스 온 더 패밀리(Focus on the Family)가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트루스 라이징(Truth Rising)> 상영회가 1776 라운지에서 진행되었다. 본 상영회는 '기독교 서구 자유문명의 위기'를 주제로 하여 12월 9일(화) 1차 상영과 12월 20일(토) 2차 상영으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상영 이후 참석자들은 다큐멘터리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주요 쟁점에 대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추가 상영을 요청하는 의견이 이어짐에 따라, 2026년 1월에도 추가 상영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우남네트워크 운영위원 회의 및 확대 모임

지난 17일(수), 조평세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남네트워크에서 운영위원 회의 및 확대 모임이 진행되었다. 해당 모임에서 조평세 대표는 1776연구소를 소개하고, 특히 견미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소의 사역을 홍보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견미단 1·2기를 수료한 정대교 단원이 인하대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활동 중인 학내 모임 '인하정신'을 소개했다. 이는 견미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리를 이승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계승·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공유되었다.

### 1776연구소 연말 파티

지난 27일(토), 1776연구소 연말파티가 진행되었다. 이번 연말파티에서는 1776연구소 자문위원인 황성준 위원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가>를 주제로, 이어 조평세 대표가 <워싱턴의 델라웨어 크로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더불어 참석자 간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되었고, 알차고 흥미로운 퀴즈 프로그램과 선물 나눔을 통해 연말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견미단 3기 1차 온라인 설명회

청년 이승만의 발자취를 따라 미 동부와 하와이를 탐방하는 견학 프로그램 '견미단' 3기 모집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 29일(월) 견미단 3기 1차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기수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한층 보완된 미국 현지 일정과 사전·사후 견미단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운영 방향, 참가자들이 얻게 될 학습적·실천적 성과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 대표 인사말

Happy SUPERCENTENNIAL!!  
드디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2026년이 밝았습니다

'250주년'을 뜻하는 공식 영어 명칭으로는 semiquincentennial, sestercentennial, quatermillennial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입에 붙지 않아서 미국에서도 그냥 'America 250'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디트리히 본히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기독교 작가 에릭 메탁사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를 아예 'Super-centennial'로 부르자고 공언했습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비단 미국인 뿐 아니라, 자유문명을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인이 축하하고 기념해야 할 대대적인 사건이었지요. 그해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선포된 다음의 독립선언문 문장을 두고, 저명한 작가 윌터 아이작슨은 이를 "The Greatest Sentence Ever Crafted by Human Hand"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 (self-evident)으로 여긴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Created equal)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특정의 분리불가능한 권리(unalienable Rights)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들 중에는 생명(Life)과 자유(Liberty)와 행복의 추구(Pursuit of Happiness)가 있다."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죄를 알렸다' 추궁 쇼를 비롯한 각종 망국 행보를 보면 여전히 우리는 전근대 조선을 살고 있는 듯한 답답한 마음을 떨리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라고 250년 전 미국인들처럼 그러한 독립정신을 발휘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암울했던 '헬조선' 시기, 한성감옥에 갇힌 29살 청년 이승만은 "대한교우들이 힘 쓸 일"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기가 막힌 글을 썼습니다.

"하느님께서 저 [미국] 사람들에게는 모든 권리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사지 백체와 이목구비를 아니주셨는가. 당초 미국이 독립하여 ... 영원무궁한 복락의 기초를 잡은 것은] ...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께 평등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깨달아 된 것인 고로, 그 독립선언문을 전국민이 지금껏 외우며 감동하는 바라. ... 교회로 말 할진데 마틴 루터씨가 교를 고칠 때에 이 뜻을 들어 내었고, 정치상으로 말 할진데 [조지] 워싱턴 씨가 미국을 독립할 때 이 뜻을 드러내었다]...

우리가 이 보배로운 이치를 알아 이전 생각의 모든 결박을 벗어 나서 높고 낮은 자도 없고 강하고 약한 자도 없고 일체로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어 평등복락을 누리고자 함이 참 예수교인의 지극한 원이라. ... 우리나라의 실낱 같은 혈맥은 다만 예수교회에 달렸거늘, ... [곧 이것이] 하느님이 동등으로 주신 권리를 회복하는 본의[며], 예수께서 결박을 풀어주신 은혜[이며], 나라의 장래 바람[이라]. ... 동포와 나라를 구제해[는 이 성경의 이치는] 정치 법률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로써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음에 있[으니], 한 명[씩] 돌아와 우리와 함께 일꾼이 [되고, 곧] 전국이 모두 충군애국하며 자주독립하는 동포가 될지니, 무슨 걱정이 있으며 무엇이 부족하리오. 어서 바빠 일들하여 전국 사람 [중 이 이치를] 모르는 자 [아무도] 없도록 힘써 나아갑시다."

참으로 경허해지는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776연구소는 이 청년 이승만의 권면을 받들어 올 한해도 바빠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Busy as ever,  
조평세 올림

# 1월 연구소 동정

## 1776아카데미 기본과정 3기 개강

1월 3일(토), 보수주의의 역사와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1776 아카데미" 기본과정(5주)이 개강한다. 해당 기본과정 수료자는 향후 개설 예정인 1776심화과정 및 세미나에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미국 기독교 민족주의> 발제

1월 9일(금), 조평세 대표가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미국 기독교 민족주의>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번 발제에서는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독교 민족주의' 개념이 '보수주의' 개념과 혼용, 잘못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교분리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트루스라이징> 추가 상영회

1월 10일(토),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다큐멘터리 <트루스 라이징> 상영회의 3차 추가 상영회가 진행된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므로, 많은 관심과 시청을 권한다.

##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포럼 제3회 학술대회 참석

1월 13일(화),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 포럼 2026 학술대회에 참석한다.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1776연구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영회를 진행한 다큐멘터리 <트루스 라이징>을 제작한 콜슨센터 대표 존 스톤스트리트(John Stonestreet)가 기조발표를 맡는다. 1776연구소는 상영회에 함께한 이들 가운데 희망자를 모집해 본 학술대회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구 기독교 자유문명의 위기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견미단3기 2차 온라인 설명회

견미단 3기 2차 온라인 설명회가 1월 26일 저녁 9시에 있다. 미국독립 250주년 기념하는 견미단 3기의 미국 일정과 전후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주목할만한 뉴스 / 칼럼

## <우리는 왜 싸우나>

- 매튜 리지웨이 / 조평세 역



"워커 장군 사망(1950.12.24.) 이후 미8군 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매튜 리지웨이 장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혹독한 겨울을 지나며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던 연합군을 대상으로 1951년 1월 21일 다음의 '전군 전파사항'을 내려보낸다. 이 감동적인 지휘서신은 미군에게 이 땅에서 싸우는 이유가 단지 땅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산주의 무신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인 서구 자유문명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명문의 글은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유엔군이 다시 공세로 전환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 실제로 1951년 2월 13~15일 벌어진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유엔군이 첫 대승을 거두었고, 승기를 잡은 유엔군은 기세를 몰아 3월14일 서울을 70일 만에 재탈환했다."

## <맑시즘의 영적 실체>

- 조평세



"맑시즘은 인간 사회를 계급 간 생산수단 소유 관계 및 계급 투쟁으로 이해하는 정치사회관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맑시즘의 기원을 단순히 산업혁명의 경제적 불평등에서 찾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그 근저에는 종교적·영적 차원의 반기독교적 열망, 즉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 건설과 인간 구원"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출발점은 18세기 프랑스혁명이었다. 프랑스혁명은 단순한 왕정 타도의 정치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의 전복과 청산(de-Christianization)을 목표로 한 문명적 반란이었다."

# January, in the History of Liberty

**1월 1일(1863)**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남북 모든 흑인 노예의 해방을 선언하다.

**1월 1일(1892)** 뉴욕 항구의 엘리스 섬에서 입국심사가 시작, 1954년까지 2천 만 명이 이곳을 통해 미국으로 이민오다.

**1월 4일(1951)** 대한민국 국군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에 밀려 서울에서 후퇴하다.

**1월 5일(1976)** 캄보디아에서 폴 포트의 크메르 루즈 정권이 공산주의 헌법을 발표, 이후 약 3년 동안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킬링필드'에서 학살당하다.

**1월 10일(1776)**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 출간되다. 55쪽의 이 작은 팜플릿은 미국과 유럽에서 약 50만 부가 팔리며 국민들 가운데 독립 열망을 일으켰다.

**1월 10일(1729)** 보수주의 정치철학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에드먼드 버크가 태어나다.

영국 의회에서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지했지만 바다 건너 프랑스 혁명에는 반대했다.

**1월 21일(1968)** 북한의 무장게릴라 31명이 박정희를 사살하기 위해 청와대습격을 시도하다.

**1월 23일(1968)** 동해에서 미국 푸에블로 함선이 북한에 의해 납포되다. 선원 한 명이 죽고 나머지 선원은 12월에 풀려났다.

**1월 27일(1973)** 파리에서 북베트남과 미국 대표들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다. 58,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했고, 300,0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500명이 실종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1월 30일(1933)**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로 임명되다. 히틀러는 이후 나치 독일의 권력을 독점하였고, 유럽에서의 팽창 전쟁과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를 통해 약 5천만 명의 죽음을 초래했다.

# 12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오은	김오우	김오애	도오현	박오석	베드오센터	손오은	원오슬	이오웅	자오기업원	정오한	한오인재연구소
고오훈	김오효	김오희	맹오기	박오셉	변오연	손오광	이오윤	이오윤	장오재	정오아	허오은
구오성	김오춘	김오은	문오아	박오배	서오곤	손오원	이오윤	이오성	장오	정오용	현오윤
권오빈	김오경	김오실	민오우	박오혁	서오민	양오호	이오필	이오란	전오린	조오제	
권오선	김오애	김오진	민오나	박오주	서오경	양오진	이오경	이오민	정오교	조오호	
권오연	김오연	김오일	민오환	박오기	서오현	염오영	이오환	이오은	정오원	주오환	
권오현	김오하	김오춘	민오혜	박오기	성오술	홍오은	이오진	이오철	정오민	차오욱	
기오희	김오중	노오스터	박오민	배오호	성오준	우오유	이오영	이오성	정오슬	추오령	

**1776연구소 후원 안내**  
3만원 이상 정기 후원 시  
1776연구소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는행 1005-004-781904  
(1776연구소)